

전남대병원 비인기과 전공의 부족 여전

8개 지방국립대병원, 정원 절반도 못채운 과 수두룩 지역 거점병원 흉부·병리과 등 수급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전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지방 국립대 병원 의료 기피과와 전공의(레지던트)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역외 유출이 지역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부족 현상으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장안)이 지방 8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재처리한 '2018년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리과와 흉부외과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과의 경우 정원 대비 전공의 근무 현원이 크게 부족했다.

특히 병리과·비뇨기과·외과·흉부외과의 의료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병리과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현재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인 국립대병원은 경

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7곳이었다.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정원 대비 현원이 절반 이하인 국립대병원은 전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3곳이었다. 외과 현원이 절반 이하인 병원은 경북대, 충북대 등 2곳, 흉부외과에서 절반 이하인 병원은 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등 4곳이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병리과는 정원 7명 중 3명, 흉부외과는 정원 4명 중 1명의 전공의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병원 병리과는 정원 6명 중 한 명도 없었으며 외과는 18명 중 9명, 흉부

외과는 8명 중 단 한 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의 경우는 흉부외과와 비뇨기과에 전공의 정원이 없어 근무하는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기피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는 의료 질 하락과 지역거점병원 역할에 영향을 미쳐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질 향상과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피과 전공의의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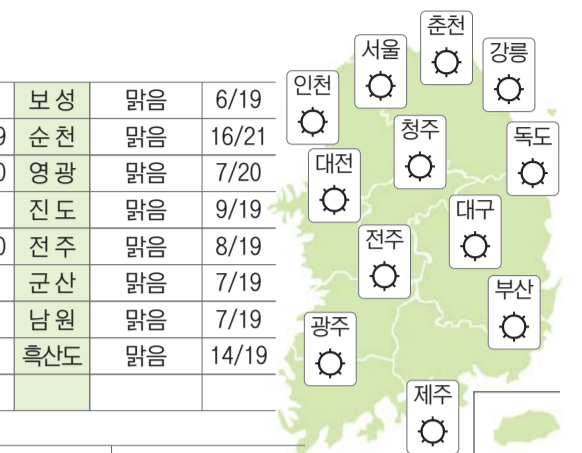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6 달뜨기 17:53
 해질 17:47 달지기 05:55

쾌청한 가을 하늘 고기압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8/20	보성	맑음	6/19
목포	맑음	11/19	순천	맑음	16/21
여수	맑음	13/20	영광	맑음	7/20
나주	맑음	6/20	진도	맑음	9/19
완도	맑음	11/20	전주	맑음	8/19
구례	맑음	7/21	군산	맑음	7/19
강진	맑음	8/21	남원	맑음	7/19
해남	맑음	7/20	흑산도	맑음	14/19
장성	맑음	6/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0.5~1.5	북~북동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03	01:41
19:22	14:04	
여수	02:31	08:47
	14:44	21:00

◇ 주간 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8/21	11/18	9/16	8/18	8/15	6/15	5/15

◇ 생활지수

	관심
	보통
	보통

출산 미뤄도 난임은 걱정 남자 동결보관 여성 급증

결혼, 출산 등을 미루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냉동 남자'로 불리는 남자 동결보관 시술을 받는 여성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3일 차병원그룹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 강남차병원, 차병원 서울 역삼센터에서 남자 동결 시술을 받은 여성은 2013년 23명에서 2017년 12배 이상인 288명으로 늘었다.

보관하는 냉동 남자의 개수는 환자에 따라 다르다. 차병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의 '남자 동결보관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기준 가장 많은 남자를 보관 중인 의료 기관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차병원에서 남자 동결보관 시술을 받은 여성은 총 648명이다. 30대(310명)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43명이었고 20대도 90명에 달했다. 50세 이상은 5명이었다.

의료계에서는 과거 항암 치료를 앞둔 암 환자들이 난소 기능 상실에 대비해 남자 동결을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결혼 여부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여성들이 '보험용'으로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허윤정 차병원 서울역삼센터 교수는 "냉동 남자 시술이 과거보다 많이 알려지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30대 초반의 기준 여성은 물론 20대 미혼 여성도 적지 않게 찾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로수 들이받고 인도 덮친 덤프트럭 23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조모(57)씨가 운전하던 25t 덤프트럭이 인도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있다. 경찰은 조씨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4개 대학 저소득층 학비 감면 '인색'

GIST·광주교대 10% 규정 한려·동강대 30% 규정 미준수

광주·전남 4개 대학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교대는 2017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광양 한려대, 광주 동강대는 30% 규정을

어겼다.

전국적으로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학부 6곳, 대학원 19곳이었으며 30% 규정을 어긴 대학은 58곳이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지급액 확대로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공립대가 모범이 되는 방안을 찾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학 게시판에 글 올린 교수 징계 나서 논란

광주의 한 대학이 학내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교수에 대한 징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A대학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15일 교원으로서 품위상상의 사유로 이모 교수에 대한 징계건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측은 이 교수가 지난 3일 학내 게시판(자유토론펠)에 올린 글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에 입장' (Enter the Cage)이라는 글에서 "우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순진한 절대 다수를 잡아먹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악의적으로 판정을 부리고 있는 짐승같은 저들이야말로 가족을 벗겨 털을 뽑고 다듬어야 할 혁신

의 대상이다"는 내용 등을 썼다.

이 교수는 "단지 대학의 개혁을 촉구하는 은유적 글이었는데 당사자 소명권도 부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소명권 부여는 명문 규정에 없는 사항임에도 소명권을 주려했으나 당사자가 일정 등을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인사위원회 규정과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구체적 징계사유나 징계위원회 논의 사항 등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달 15일 수능일 출근시간 늦추고 대중교통 늘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달 15일은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아침 시간대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시험장은 내진설계 여부 등 건물 안정성을 고려해 정해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2019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김형호 기자 khh@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전문, 모아엘가 우문, 대성베르힐 전문 바로알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분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몰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의: 430-8801